



학교폭력예방교육, 적극적인 예방으로 전환되기

글, **이혜미** -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부천소사초 교사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학기 중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에 걸맞은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외부 전문가 교육의 경우 학교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적 한계를 보였다. 학교폭력 문제가 이 시대 교육의 화두로 제기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앞 다투어 단위 학교에 학교폭력예방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였다. 그러나 자료집에 수록된 프로그램들이 학교폭력이란 주제를 깊이 있게 분석, 성찰하여 체계적으로 제작되었다기보다는 이전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들을 짜깁기하여 구색만 갖춰 놓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학교폭력예방 자료집이 학교 현장에 내려가더라도 일선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교사들의 난감함은 지도할 자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교사들이 이전까지 했던 여러 가지 생활 지도 방법들이 더 이상 학생들과의 소통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암담함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폭력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며 복잡한 구조로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라진 교육환경으로부터 새롭게 요구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학교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로부터 발생한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다. 좀 더 정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법을 살펴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도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새롭게 등장하는 학교폭력의 사례들을 열거하고 이러한 것들이 학교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렇듯 법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은 다양각색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이나 편의대로 현상을 바라보게 되고, 본질을 파악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학교폭력이 청소년 폭력(범죄)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당사자들의 신분 차이에서 비롯되는 분류인지, 단순한 장소에 따른 분류인지, 가해 심각성의 정도로 분류되는 문제인지 뚜렷이 구분하기 힘들다.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 여론 중에 “우리 때도 다 그렇게 컸어!”, “누구나 지나쳐 가는 통과 의례야!” 라는 시각이 있다. 이런 말처럼 폭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력예방 수업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때만
우리는
폭력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력이라는 문제가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발달 시기에 일어나는 문제라면 왜 청소년 폭력이 아닌 학교폭력이란 용어가 사용되는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가진 문제점은 학교폭력의 개념상의 모호함만은 아니다. 법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담임교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처리는 학교 안의 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일괄하고 있는 체계를 갖는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범죄 일반론을 기조로 깔면서 언론이 보이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심각하고 선정적인 폭력의 사례들만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는 사고가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현실의 문제들은 커다란 폭력이 벌어지기 이전의 살얼음을 걷는 위기 상황이고, 따돌림과 같은 집단 안의 복잡한 관계적 폭력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학교폭력 사례들, 개입을 피할 수 없는 교사의 역할은 사실상 법률상에 실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그 내용은 학교폭력에 대한 ‘법 교육’의 성격으로 단순화 되고, 본질적인 예방보다는 CCTV나 스쿨폴리스, 배움터 지킴이와 같은 소극적인 대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총합했을 때 우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청소년 폭력(범죄)’이 아닌 ‘학교폭력’ 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따져 물어보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라고 간단하게 서술했을 때, 학교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교를 물리적 ‘장소’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를 특정한 인간관계와 권력관계가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공간, 즉 끊임없이 사건이 발생하는 ‘장’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학교의 의미를 후자의 경우로 확장했을 때 학교폭력의 개념은 보다 명확해진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맺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재개념화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의 인간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 폭력으로 좁히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에서 맺어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학교폭력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학교폭력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다. 학교라는 ‘장’을 구조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안과 해결책을 내오기는 쉽지 않으며, 쏟아 붓는 모든 노력은 한계와 실패를 반복 경험하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극적 대처에서 적극적인 예방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나 당사자 간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학급 구조나 문화를 통해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해결의 여지도 찾게 된다. 또한 폭행에 해당하는 심각한 폭력 사례만이 아닌 집단 따돌림과 언어적 폭력, 비난·조롱·무시와 같은 행위와 심리에도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척박한 현실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 학급 집단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 안을 고민하고 찾아 나설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방과, 대응, 사건 처리 및 추후 교육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폭력에 맞닥트렸을 때 폭력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문제, 사건이 발생된 후의 처리 문제, 가해자와 피해자 대상의 추후 교육활동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사건이 벌어진 뒤에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란 쉽지 않고,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도 크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방안은 뭐니 뭐니 해도 사전 예방교육을 잘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때 예방교육의 형태는 기존의 방식으로부터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두 차례의 프로그램 투입이나, 법 교육 형태의 수업으로는 적극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관계를 통한 구체적인 삶

의 체험을 통해 가능하며,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폭력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에서 배제되었던 담임교사의 개입과 역할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담임교사는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과 함께 학급의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모든 구성원이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 그 자체가 곧 예방 활동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폭력예방활동

학급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교사라고 하더라도, 학급집단과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지 않는다면 목표하는 바를 기대하긴 어렵다. 폭력에 대항하는 평화로운 학급 풍토를 마련하는 문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생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급 약속이나 평화규칙과 같은 집단생활의 기틀과 목표를 세우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3월이라는 첫 만남을 ‘기선 제압’을 위한 전략으로 채우기보다는 이와 같은 학급살이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다듬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집단의 토론이나 합의라는 말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방법은 다양하다. 학급 생활에 대한 설문지를 돌린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동안 겪어왔던 학급 생



평화규칙은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사연수가 진행되어야 한다.



활의 경험을 글로 써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학급의 평화, 화목이라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재로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구성원이 합의한 학급의 약속들은 보다 큰 실효성을 지닐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성으로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어디에나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갈등을 버겁게 느끼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갈등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 학생들이 힘겨움을 토로하는 폭력의 형태 중 하나가 뒷담화인데 그들 자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한다. 뒷담화는 따돌림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뒷담화는 갈등의 존재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른다. 오히려 뒷담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어나는 갈등을 풀어낼 공간이나 구조가 없어서 심화되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학급 안에 이와 같은 열린 의사소통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적인 학급회의, 또는 소집단 상담과 같은 학생들의 의사를 수용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적인 시스템을 설계·구축하는 일 역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기본 활동일 것이다.

학교폭력 메커니즘, 인정 욕망에 대한 이해

교사는 학급을 구조적이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학급에 필요한 평화적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일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작동 원리(메커니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은 왜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원인을 제기한다. 개인의 성향, 가정 문제, 폭력적인 매체, 폭력적 사회구조……. 이러한 원인들이 학생들의 어떤 심리 욕구와 결합하여 폭력문제를 심화시키는가?

학생들이 가진 많은 욕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집단이라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폭력의 문제가 집단 안의 개인의 위치, 즉 영향력, 힘, 권력이라는 코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은 집단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아이들은 인정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집단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양상은 달라지게 된다. 인정을 위한 경쟁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흐를 때 집단은 발전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툼과 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다분하다.

요즘 아이들의 인정투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체감은 사회가 그만큼 인정받기 힘든 구조가 되었으며,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아이들의 열패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구조가 학생들의 인정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학교와 학급의 문화가 다양한 아이들의 인정을 받아주는 공간이 되었을 때 과열된 학생 간 갈등, 폭력과 따돌림 문제는 완화될 수 있

학급은
권력적인
인간관계로부터
사랑, 우정, 연대의
가치가 소중하게
자리매김 되는 공간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을 것이고, 아이들도 주변인이 아닌 주체가 되어 비로소 서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은 권력적인 인간관계로부터 사랑, 우정, 연대의 가치가 소중하게 자리매김 되는 인정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학급은 가시적인 폭력 상황이 없는 평화적 공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운동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함께 변화해야 할 것들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은 학급이지만, 학급이 원활하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학교 구조 변화가 필수적이다. 학교 역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학급이 중심이 되고, 학생부, 진로상담부와 같은 학교폭력 관련 부서와 학교 관리자는 학급과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과 체제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동아리 활동과 축제를 반영하는 등의 학교의 문화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학생회 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이 문화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자치 경험이 될 수 있으며, 학교의 공식적인 인정 영역을 다양한 차원으로 넓힌다는 의미도 갖는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학교가 아닌 가정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학교는 그것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안의 힘으로만 해결

되기 힘들기 때문에 학교 안과 학교 밖 기관들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외부에서는 교실에서 교사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과중한 업무, 교권문제, 생활 지도 등 교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변화와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에게 적절한 권한과 능력을 갖추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교사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을 부채질하며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 변화된 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풍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상심과 문제 제기에도 귀기울여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센터는 원활한 소통 구조를 만들고 누구든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력의 대처에서 적극적인 예방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교육과정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교육 개혁도 필요할 것이다. 폭력의 예방과 평화라는 가치의 학습은 전 교육과정 안에 면면히 스며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큰 틀의 변화가 작은 틀의 변화와 함께 만날 때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